

인간으로서 말하리라 하면 既成名士들中에 보다 비토리온  
듯純眞하고 蠻勇인듯義舉있는學生界의 그사람들이라하  
겠다.

보라! 荆棘이滿天한 이다우에서 燕尼服의일류의  
영마나勳力이 되겠으며 送秋波의關事가 언발에 오줌  
누기보다 영마나 & 흥을누기라 범을보고怯내느니라  
가스사로禍를입으리하니 모를이拂髮挺立할것이요  
蓬頭에處한者一風餐露宿을몰아보지안는데서 成功의  
寶冠이 낮하난다는것이다. 內外에있는朝鮮佛敎學生同志  
는창으로기를할진커

그러나 이어긋음을멈추고 우리學生界를 살펴볼제  
以上에말한期待가 적어짐을누기지안음 수업을을 해  
다를때愕然長太息의 나도몰내 목구멍을비잡게한다.  
近來學生의 十數年前그예에比하여一般으로熱이적어졌  
다는말은 몹시분하게듣기나 그러나변명못할事實이며  
더구나 우리佛敎學生界가그리하다는것은 아무리 우  
리環境이環境이라할지라도 못그리움을 누기지안음누  
었다는것이다.

果然그리하다 마음은모은자리에서 義淚를쏟림이  
일마나되퍼 영마나 & 흥을누기나 大衆을움직임이일마나

되는가 두사람만 모이면 돈이약이요세사람만모이면  
戀談이나오나니 이가비로篤工한나머지에 心身의疲勞  
를쉬우는漫談이라할지라도 오날우리로서는取할바가아  
니라할것이다. 레니스체代身에 광이들들지안으려나  
團遊會머신에結義團을組織하지안으려나 自己全生命을  
들어大衆公事에바치지안으려나 우리들의오날犧牲으로  
死後代永世의福樂을만들지안으려나

아! 이夜半에 내잠을일우지못함이며 그리운사람을  
잊지못함이로다.

### 社 告

○本社에對한金錢通信은左記住所로하며주심을바람이다  
○本社에對하여同情한여러분에게感謝를들이오며아름디  
健康도비나이다.

○本誌拾部以上을한곳에서注文하오면 定價의二割로더  
리겠습니까

東京市外澁谷町氷川一〇

金剛杵社白

## 佛 青 年 的 一 言

許 永 鎬

어리한題目아래서 여러분의게 말함 고말칠만한  
信이 나의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른다. 그만큼  
나는 모든것을 돌보고 反省할餘裕를 가지지안는다  
다맛 모든것을 후리치고 무슨말이라도 해야하겠다  
는 精神衝動이 나로하여곰 이러한題目아래서 붓을  
들게한것만은 眞實노告白한다.

그런때문에 여러분의게向해서 佛陀의法을 말한다  
는것은 지금나의게는 맞지안는다. 無常의理를 말한  
다는것은 맞지안는다. 無我의法을 말한다는것은 맞  
지안는다. 하물며 五蘊을말하며 六入을말하며 十二  
相緣을말하며 正道를말하며 涅槃을 말하겠느냐?

여러분의理智에 여러분의體驗에 여러분의生活理想  
에안의 여러분의生活焦點에 다맛 물어보고 하소연  
하라는데뜻이다. 그런데문에 어떠한生活感情을 가졌  
고어떠한生活理想을가졌거나 生活그것을 凝視하라는  
여러분의게는 반듯이 다음瞬間의는 버린다하더라도

나의말을 여러분의生活에 스를通해에 여러분의生  
活焦點의우에 가쳐다보리라고는 생각한다. 이것의  
나의推論에만 의치지안는다하면 나의말은 그갈길  
을간것으로 생각하라한다.

모든意味에잇서 現代만치 生活에대해서 關心한  
時代는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現代만치 生活에대해  
서 熱中한民衆은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生  
活處의激變 生活路의錯亂 生活人의狂奔이 社會的으  
로 混亂線으로 生活過程의우에 그려세 그런곳이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生活難의微背 이生活苦의深刻  
을어떻게 보라고하는가? 나는 이것을 못고싶다.  
이것을 알고싶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라고하는가? 어떻게 보는  
가? 나는 못고싶다. 이社會現象은 여러분의生活을  
通해서 밧서 生活焦點의우에 어떤映象을 그리슬것

이 고 단아서 어떤生活理想의象形을 描寫하였을 것이  
라고 믿는다.

여러분은 한사람이 아니다. 열사람이 아니다. 백이 넘  
고 천이 넘는사람이다. 그만큼 그生活感情 그生活理  
想의內容은 다를것이다. 그만큼 여러서 나의推斷도  
粗略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現實을  
凝視하면서 人生을 생각할것이다. 그리고는 이現實  
苦의根據를 차지라할것이다. 어떤이는 社會制度속에  
서 어떤이는 經濟組織우에서 어떤이는 人間性속에  
서 어떤이는 政治法律속에서 社會學的으로 經濟學  
的으로 形而上學的으로 그根據를 차지라할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努力의 意識的이고 無意識的이고  
自動的이고 被動的인것을 못지안는다. 그것에對해하  
다만 肯定的態度를가지고 否定的態度를가진 두人間  
型을 分類하는것으로서 描記하라하는것뿐이다.

人類를 縱斷하면 이두人間型에 모다編入되힌수가  
있다고생각다. 여러분도 백이 넘고 천이 넘지만은 중  
強弱한分類法이나마 이두人間型의어느것이나 들것이  
라고 믿는다. 그리고 만일 안이드는사람이있다면  
그분은 내가 標準하는여러분의限界밖에 드는사람으

로 볼수밖에없다.

그러면 이現實苦를 人類의어느社會 어느時代에가  
더래도 다 있는것으로 다맛 어찌하면 나는 이現  
實苦를 一맛지안을까? 하는것이 唯一의目的의이고 唯  
一의關心인 卽이現實苦속에서 어찌하면 이現實苦를  
避할가하는것이 그生活理想의中心을 차지하고있는사  
람은 우에말한肯定的人間型의속에 들어가는이라고본  
다. 그리고 科學的이거나 直觀的이거나 人間苦 現  
實苦는 到底히 이치상으로부터기는 업서찰수가업다  
卽現實苦는 人類의게 賦課된無始久遠의運命이다라고  
하는 즉 反省된觀念을 가진사람도 이人間型에 들  
어간다고본다. 안이 이러한叙述보다도 自己安全을目  
的한生活線上을 발버가는사람은 다 이人間型에 들  
어간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一般性을 가지  
고있는 人間型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의生活感情 生活理想은 이人間型을  
스스로 自身속에 만들기를 얼마나 애쓰느냐? 그  
리고 여러분의生活感情 生活理想은 이人間型을 스  
스로 自身속에 만들지안케 얼마나 拒否하느냐?  
人類의思想史는 自我自覺의過程記錄이라한다. 그러

면 이人間型은 人間生活의最高型을 表徵하는것이

될는지 모른다. 왜 그러냐하면 自我自覺은 自己確  
立의요 自己確立은 自他峻別의요 自他峻別은 自己  
安全을 目的하는以外에 아무結論도 가커다주지안는  
때문이다. 또는 抗議할는지모르겠다. 自我自覺은 自  
利唯謀를 意味하는것이안이라고! 또는 可能한辯解  
가 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自我自覺은 무엇을  
意味하는것이나? 自己存在 自己獨立 自己權威를  
確立시킨것이 안이나? 西洋史流로말하면 神으로부  
터 人間을 解放하였단말이나? 偶像의鐵鎖로 부터  
斷切되었단말이나? 象牙塔으로부터 街頭로나와단말  
이나? 民衆의속으로 들어갔단말이나? 外界의모든  
關係로부터 自己를 剔出시켜단말이나? 進化論上의  
位置를 保障하였단말이나? 必竟 經濟上 法律上

個人存在를宣言하였단말이다. 自我權利를回收하였단말  
이다. 自我權利란무엇이나? 自己利益을되난 自我權  
利는 存在理由를 가지못하는것이다. 그러하면 自  
我自覺의人類思想史는 自己利益을追求하는 生活過程  
의記錄이다. 그리고 이것을肯定하는동안 一人間生活의  
最高型을表徵하게될는지 모르겠다. 나의말이 그

리가주말안인것을 首肯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人類는 그러한抽象的觀念의對象되기에  
너무나 具體的이다. 그들의絶對眞理學說은 人類는  
個人的인안이라는現實노말미암아 스테커가고있다. 그  
러나 三四千年前부터역리박기를 시작한自我의觀念은  
너무나 熾盛勢力을 가지고있다. 衆生無邊誓願皮라는  
願의內容과가치 將來無終히 그勢力을 가지고있을는  
지도모른다. 그러나 二十世紀初頭를絶頂한 自我觀念  
은 無言의人類生活의過程으로말미암아 스테커가기를  
始作하였다. 이것을 나혼자의觀察이라고 迷斷하지말  
기를 바란다. 여러분自身이발서 體験하고있는바이안  
이나? 우리의銳利한現實의檢討는 自我存在의基礎에  
광의를 방지 넘코있다. 現實苦의究明은 自我存在의  
속에 根據한것을 把握하고있다.

抑 여러분의自己安全은 어떠한것이나? 여러분은  
여러분의良心속에 消極的狡猾을 豫想하지안코 自己  
安全을 觀念企圖計劃한적이잇느냐? 지금의 나의말  
의 너무나野蠻한것을 容恕하기를 바란다.抑 여러  
분의自己安全은 어떠한것이나? 알고싶다고고싶다.  
利害의關係하지안인한自己安全은 이치상 어느구간

에가치보아도 없다. 利는 善을前提하지안코는 具體化되지안는다. 自己安全은 次고 善을目的하는것이안이다.

여러분은 나의말이 여러분의生活理想을 그린것이안이라고 고개를 가로흔들것이다. 나도 바란다. 안의 그러하리라생각한다. 그러하지만안된것이라 고 밋는다. 왜 그러냐? 이러한醜態한것은 人間의生活意識——生活그것이 人間一般의 不肯하는해본이다. 自我라는總綱으로 化石化시킨頭腦의所有者가안이면 생각할수업는해본이다. 自己를中心해서 一切것을 強引附會하라는觀念人이안이면 하지못할것같은해본이다. 그러나 사람은 自我라는말이안이면 社會에 살아갈말이 업는듯이 아무反省없이 自我를高調할만치 自我라는말은 魔女以上の誘惑性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生活은 自我的이안이면서 外의한 機會만있으면 自我를 主張하려고한다. 그觀念의 生活의破綻과矛盾을 가져오는줄도모르면서 利己가안이다는辯明으로 귀어히 쳐노라고한다. 무슨 이 收拾하지못할顛倒見이냐? 사람은 모든關係로부터 單獨히抽象적해서 把握할수잇느냐? 不可能한것이이다

에 그러나하면 自我가잇을동안까지 人類를爲해서의發願은 口頭의發願이고 僞善의發願이되는해본이다 自己를생각하는사람은 남을 全的으로 생각할수업는해본이다. 至誠으로 人類를爲해서 힘쓰이는 것이고만 공간에 自我拋棄(無我)의사람이다. 만일 참으로 眞情으로 人類——안이 남을爲해서 힘쓰이로서 自我를 拋棄하지안이면 안이 가 잇었다면 나는 그가 僞善者이었다는것을 斷言하기에 躊躇하지안는다. 또잇었다면 그는 眞情으로 남을爲해서 努力한것이안이라 제自身の幸運과名譽를爲해서 한것이라고峻論하기에 躊躇하지안는다.

여러분은 여러분의經驗上 이말의너무나極言인것을 느낄것이다. 勿論 나亦是 여러분의이느낌을 옮치안라고하지는안는다. 여러분의 남을爲해서 애쓰다고 반듯이 自我를拋棄하였다고는 體驗되지는안는다고 抗談할것을 暗想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眞情으로 抗談할것을 애쓰는그동안안을잡아서볼때 과연 여러분의 自我를 眞正히 認識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의 自我를 眞正히 認識하는것이안이나? 그自我의실체의는 여러분의

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는말은 佛陀의말씀이안이라고생각한다. 佛陀의法身을 象徵한 詩人의 表出적인 辭句에지나들안는다생각한다. 안의 나는 알면서 여러분의게 말하고심지안라. 논論調를 말브라한다. 어찌되여건 人類는 스스로만든 自我의中心인偏見으로 부러 깨라고한다. 觀念의안이고 生活의으로...그러서 觀念을訂正하라고한다. 如人の飲水에 冷暖을自知라고 여러분의 無明의矛盾으로 無明의妄執을 自證할現實을 直面하고 또 把握할것이라고 밋는다 아! 이輕快한違約을 宥恕하여라고

三、

現實의矛盾에서 現實苦를 體驗하는여러분은 自己安全의不常을 痛感하고 또 自己安全의 여러분의理想의映像이안인것을스스로 느낄때에 現實苦의根據를 차질것이다. 그리고는 그것이 經濟的이고 政治的이고 社會的이고간의 自己中心의排他的關係에서 나온것을 把握할때에는 여러분의生活焦點에 무엇이왔지 投映되는것을 體驗할것이다. 그리고는 自己中心으로 생긴現實苦의解除를 發願할것이다. 그리고는 人類를爲해서의發願의第一步에서 먼저自我를 拋棄할것이다

무엇을 그리고서 體驗하느냐? 아마自我의斷絶을 經驗할것이다. 卽自我의回生을 經驗할것이다. 그리고는 自我安逸을自己安全을 聯想할것이다. 그리고는 眞實한勞役に대해서 懈怠의氣分을 經驗할것이다. 얼마나스고픈이自我의回生이냐?

이러케 現實苦의否定的態度는 自我拋棄를 먼저體驗시킬것이다. 或은 自我를拋棄하지안코(個人的으로 보아) 現實苦의否定的態度를 가질수가있다고 여러분의 것은 現實의肯定的態度이다. 왜 그러나하면 現實苦를 그대로두고 自己만의 離脫하려고하는것이나모든 사람의게는 그대로 現實苦를남겨두고 나만 떠나는 것이니 그것은 誠이안이고 解脱이안이고 外界와關係는 逃避의獨善에 지나지안는것이다. 그럼으로 그는 外界와關係는瞬間으로부터 다시現實苦의海波의漂流을 당하는법이다.

抑 여러분의 어느것이 여러분의生活焦點에 集中되는가? 나는 여기서 여러분의 佛陀의教를받던時年이라는 일유미로서 여러분의게 特別한課題를 提出하라고는하지안는다. 하물며 보다많은義務를 加面

시하라는 心事를 가지겠느냐? 아이 그것보다 이것을보내고자할때 나의생각한바가안이다만 일침々하게생각하는이가있다면 나의생각의出發이 舊은것으로서 必수박개업다.

勿論 여러의분特殊한使命을 말하고싶지만은것은안이다. 그러나 지금 나로서는 말하기에 너무餘裕가 없다. 다음에 또 機會가잇스리라고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로하여곰 압페셔도 말

(詩) 님 생 각

고요히집현방에 蠶絲際은어인일도  
님그림사는다 덕욕설개대하는다  
아마도 이내靑春은 님업시면못살것되

동압해菊花심어 님파함예보자드니  
菊花은滿開하나 님인어이안이오다  
알들한 님의마음은 그도나를생각하리  
西으로가든달님 너게한말부라하자

하엇지마는 말하게하는때문이다. 나로하여곰 말하게하는現實이 더구나 佛敎를背棄한여러분의속에서 더욱鮮明하게 보이집으로되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말하기에 가장조흔對象이됨으로되다. 다른이들의게는 自己抛棄——無我라는말이 얼마나 어려운말인가를 내 아는때문이다.

여러분自重을 必면셔  
己巳 三、十七日 東京豐川町에서

봄 빛

먼곳에게시움은 우리님보거들방  
그리는 외로운사랑 안부러라일너주게  
(三、十五、竹林精舍에서)

심  
여섯밤을달빛의  
담신을보았시오  
달은누우사의는

진물만그루  
시내물흐르니  
조그만바우어  
나란이마조안커  
에스일을속삭일때

消息

本會臨時總會

진년二月十日午前十時에 本會臨時總會를 市外下目 黑三二八 李智英氏方에서開하고 議長吳官守氏의司會 下에 總會를進行한바 이번臨時總會에서討論한要件은 今春京城에서開催한 全朝鮮僧侶大會에關한것이며 議論이紛々하다가 結局委員을選定하여討論하는 意見이多數임으로 左의五委員을選舉한後 同十二時에無事 閉會하였다더라

委員 李智英 卞善乳 丁鳳允 徐元出 吳官守

本會卒業生送別會

去二月十日午後二時에 本會에서年中行事인 卒業生 送別會를 市外下目黑三二八 李智英氏方에서開하고

無情한錢소래의  
貴한송개여주네  
그리운당신일곱  
월경 노영모님께

(四月八日)

吳官守氏의意味深藏한閉會辭와 崔英煥氏의祝賀辭를비롯하여 今春卒業生인 李智英 卞善乳 姜在鎬 諸氏의榮譽의積功으로 果를보게된그동안의 足跡을 諸氏談과 金再榮 丁鳳允 朴昌斗 諸氏의朝鮮佛敎를爲하야한것에일해달나는 피석전祝賀談은 場内の空氣를세롭게하며 滿座會員의 가슴에구름씨를뿌려주는同時에 攝影과和氣津々한 茶葉會로외當日의式을맛쳤다는대 今年卒業生の氏名及學校別은如左하다더라

- 李智英 東京醫學專門學校
- 卞善乳 東京高等佛敎學校倫理敎育科
- 姜在鎬 東京高等佛敎學校地理歷史科